

## 노르베르트 베버 필름 컬렉션



〈한국의 결혼식〉 촬영 당시 베버 총아빠스(좌)와 카누트 다베르나스 신부(우)  
© Archive Sankt Ottilien

구성·규모	영상 6종(장편 1종, 단편 4종, 푸티지 1종)		
주요시기	1920년대	언어	독일어
수집처	독일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수집연도	2015년
열람범위	영상도서관(상암, 파주) 내 VOD 열람 가능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OSB, 1870~1956)는 1909년부터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교육과 사회사업 중심의 선교 활동을 전개하며 만주까지 선교지를 넓힌 독일 베네딕도회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Erzabtai St. Ottilien)’의 총아빠스(Archiabbas, 수도원의 대표)로, 1911년과 1925년 두 차례 조선을 방문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노르베르트 베버 필름 컬렉션은 그가 두 번째 조선 방문 때 촬영한 오리지널 필름을 2015년 발굴해 디지털 스캔·수집<sup>1)</sup>한 것으로, 장편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외에도 <한국의 결혼식> 등의 단편 4편 그리고 편집에 사용되지 않은 5,000m에 달하는 35mm 촬영본 네거티브 필름을 망라한다. 필름 종류로 보면 촬영 원본인 질산염 네거티브 필름과 당대 극장 상영에서 사용한 프린트 필름도 포함한다. 이는 1925년이라는 시기적 희소성을 감안할 때 규모와 구성 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현존하는 1925년 이전 조선을 기록한 영상은 버튼 홈즈 등 여행가들의 단편적인 기록에 그친다. 이에 반해 베버 필름은 사전 기획과 치밀한 준비를 거쳐, 선교지역 사람들이 직접 재현하는 장면들을 여행 기록과 함께 구성한 장편 다큐멘터리와 마을사람들이 출연한 단편 극영화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왜 베버는 조선에서 영화를 찍었을까? 베버는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의 총아빠스이기 전에 인류학자였고 예술가였다. 영화를 통해 수도원의 선교 활동을 홍보하고자 했고, 동시에 일제강점기 조선 고유의 풍습과 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민족지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때문에 독특한 종교 영화가 탄생했다. 기록에 의하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1927년 뮌헨 민족학박물관의 첫 상영을 시작으로 독일 전역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1930년대까지 상영됐다. 선교 활동의 홍보와 민족지적 기록에 대한 강연이 곁들여졌던 베버

1) 독일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지하 아카이브에 노르베르트 베버 필름 컬렉션이 보존되어 있다. 그동안 질산염 원본 필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다. 2014년부터 한국영상자료원의 현지 조사원이 수차례 수도원을 방문하며 담당 아키비스트인 마틴 신부(F. Martin Trieb OSB)와의 신뢰 관계를 쌓았고, HTW Berlin, 독일 키네마텍(Deutsche Kinemathek)의 마틴 코에버(Martin Koerber) 교수 등의 지원으로 2015년 3월 마침내 원본 필름이 존재함을 알게 됐다. 수도원은 질산염 필름의 화재 위험으로 인해 전량 복사 후 폐기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으나 마틴 신부는 복사 작업 후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남몰래 보존해왔다. 무려 21칸의 질산염 필름이 발굴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필름의 상영을 위해서 공식 심의를 받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와 <한국의 결혼식> 두 편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리지널 프린트에는 많은 상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 ※ 수집 영상 6종(장편 1종, 단편 4종, 기타 1종) 세부 내용

구분	제목	필름 종류 (수량)	수집 형태
장편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i>Im Lande der Morgenstille</i>	35mm ON (1점) 35mm OP (1점)	4K Digital Scan 2K Digital Scan
	한국의 결혼식 <i>Eine Koreanische Hochzeitsfeier</i>	35mm ON (1점) 35mm OP (2점)	4K Digital Scan 2K Digital Scan
단편	한국의 아이들 <i>Unter der Jugend Koreas</i>	35mm DN (1점)	2K Digital Scan
	한국의 선교현장에서 <i>Auf dem Koreanischen Missionsfelde</i>	35mm DN (1점)	
	조상숭배 <i>Ahnenkult</i>	35mm DN (1점)	
기타	미사용 촬영 푸티지	35mm OCN (1점)	

OCN: Original Camera Negative Film    ON: Original Negative Film  
DN: Dupe Negative Film    OP: Original Print

한편 베버의 영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가 국내에 소개된 역사는 아카이빙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1979년 MBC가 처음 소개한 베버 필름<sup>2)</sup>은 1985년 또 다른 버전의 TV 방영본과 이어지는 VHS 출시에 이르기까지,

2) 2009년 국내 출시된 DVD와는 다른 버전의 필름으로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영구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원본 필름은 그 어느 기관에서도 보존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한 편의 영화로서 온전하게 보여지기 보다는 단편적인 기록 영상으로 소개되었다. 2009년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베네딕토 미디어가 출시한 DVD에 이르러서야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원 제목이 사용되었고, 한 편의 영화로 선보이게 됐다. 하지만 DVD 화질의 한계 외에도 여전히 프레임 잘림이나 지나친 콘트라스트 등 기술적 문제를 지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의 노르베르트 베버 필름 컬렉션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4K 수준의 화질로 베버 필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리지널 필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제작 과정에 대해 귀중한 사실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물론 무성영화와 기행필름의 특성상 많은 장면이 유실되었거나 일부 커트는 여러 세대를 거친 저화질의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영상자료원은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에서 수집한 노르베르트 베버 필름 컬렉션을 바탕으로 2020년, 이들을 원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편집본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복원 버전은 이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베버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 편의 영화로서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3)</sup>

- 조사·연구: 최소원(소원씨아카이빙)
- 기획·진행: 이지윤(한국영상자료원)

16mm 필름 4롤이었다고 한다.(1979. 4. 7.) 이후 또 다른 버전이 발굴되어 1985년 소개 되는데 이때 소개된 제목은 <1920년대 조선풍물>이다. 두 차례 발굴된 필름 원본 모두 소실되었고, 일부 TV 방영본은 국가기록원에서 보존 중이다.

3)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2015년 발굴 당시의 질산염 원본 필름은 디지털 스캔 후 향온습도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수도원 지하 아카이브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수도원의 정책상 협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오리지널 필름이 질산염 필름 전문 수장고로 옮겨져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길 바란다.

## 영상 해제 ①

###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Im Lande der Morgenstille>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총 6개의 막으로 구성된 무성영화로, 내용면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3막까지로 민족지영화의 관점에서 조선의 풍습과 전통 문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4~6막까지로 종교영화의 맥락에서 샹트 오틀리엔 수도원의 선교 활동을 담고 있다. 이는 매우 독특한 구성인데, 베버가 사진, 영화 같은 당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였던 예술가이자 인류학자였기에 가능했다. 1927년 뮌헨 민족학박물관에서 열린 첫 상영은 문화인류학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이 영화를 소개한 반면, 1928년 영화심의를 받은 후 수도원이 진행한 순회 상영은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 소개에 방점을 둔 홍보영화의 차원이 될 수 있다. 당대의 선교영화들은 원주민들이 어떻게 교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영화적으로 감정이 고조되도록 만들어 성금을 이끌어내는 홍보영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종일관 담담함과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이끌어간 베버의 태도는 ‘선교사는 원주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베네딕도회의 선교 철학과 인류학자로서의 거리두기에 대해 예술가로서 성찰했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1930년대까지 독일 남부 지역,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순회 상영이 이어졌다. 당시 순회 상영을 담당했던 신부가 기록한 어려움 중 하나가 가톨릭 신자들이 극장 오기를 꺼려했다고 한 것처럼, 1920년대 중반까지 독일의 가톨릭은 극장을 도덕적으로 금기시했다. 반면 개신교는 일찍부터 영화가 선교 활동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가톨릭 지도부는 1920년대 후반 돌연 태도를 바꾸

어 영화를 적극 활용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1925년 상당량의 생필품과 당대 다큐멘터리 제작에 널리 사용됐던 데브리 파보(Debré Parvo) 영화 카메라를 싣고 선교영화를 찍기 위해 조선을 찾은 베버는 확실히 시대를 앞서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사람들을 동원해서 재현한 조선의 전통 풍습이다. 단연 두드러지는 것은 3막의 전통 장례로, 한 노인의 죽음부터 문상과 발인, 상여를 매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장지에 올라 안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예를 올리는 것까지 재현했다. 전통 장례 시퀀스는 꼼꼼한 기획과 사전 준비는 물론이고, 촬영이 이뤄진 마을의 신자들과 선교사의 충분한 교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베버는 이때 사용된 소품들을 샹트 오틀리엔 박물관을 위해 수집해 독일로 가지고 갔는데, 추후 이를 활용해 조선에서 미처 찍지 못한 장면들을 보충 촬영해서 함께 편집했다.<sup>1)</sup> 이밖에도 2막의 베 짜기, 3막의 맹인의 잡귀 쫓기 장면 등이 재현됐다. 이러한 재현 장면들은 여행 과정에서 마주친 다양한 풍경을 기록한 장면들과 함께 구성됐다.

선교 활동을 소개하는 후반부인 4막부터 6막까지는 베네딕도회의 선교 철학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 활동, 노동현장, 교육현장 등을 차례로 보여준 후 마지막 6막에서 이러한 선교 활동의 결실을 보여주기 위해 세례와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을 보여주는 구성을 취했다. 총아빠스로서의 여정인 서울, 원산, 간도의 크고 작은 선교 현장 이벤트와 활동을 영화 필름으로 기록하면서 틈틈이 영화에 필요한 장면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 동안 촬영하다보니 일행의 단순 기록도 맥락만 맞으면 영화에 최대한 활용했다. 예를 들어 베버 일행이 북간도의 선교지를 방문할 때, 홍수로 불어난 강을 건너는 모습을 기록한 영상을 선교사가 신자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는 설정의 스토리텔링에 끼워 넣은 식이다. 이는 로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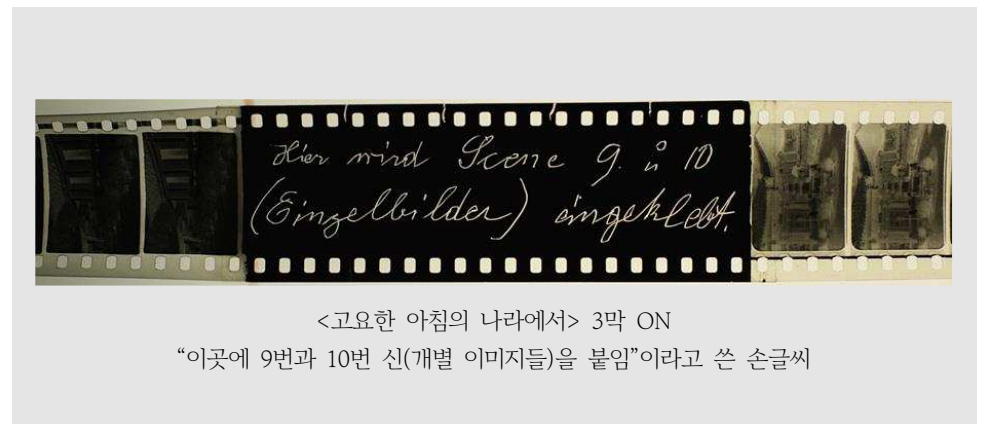
1) 이렇게 보충 촬영에 사용한 필름스톡(film stock)은 조선에서 사용했던 것과는 달라,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 상에서 쉽게 구분이 된다.

이션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한정된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촬영을 해 최대한 많은 작품을 만들어 냈던 원정영화(expedition film)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때문에 기록물로서의 엄정함을 따지기 보다는 제작 배경을 살펴며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영화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단순한 기록도 맥락만 비슷하다면 사용했듯이, 비슷한 장면들도 병렬로 이어 붙여서 영화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우마차가 짐을 싣고 지나간다면 서로 다른 우마차가 길을 지나는 장면들을 모아서 연속으로 보여주는 식이다. 3막에는 한국인이 보기에 매우 의아한 아버지와 아들의 제사 장면이 나오는데, 미사용 촬영 푸티지를 보면 조선인으로 분장한 독일 사람들이 보충 촬영을 통해 재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민족지적 기록과 이국적 불거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도 존재한다.

또 다른 제약은 바로 기술적인 한계였다. 초기 무성영화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베버의 영화 전반에서 보이는 특징은 영화를 찍기 위한 유일한 광원인 태양광을 확보하기 위해 변형된 현실의 모습들이다. 신학교의 수업 장면은 칠판을 학교 건물 외벽에 기대어 놓고 그 앞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 야외에서 촬영했고, 소녀들이 수업 시간에 수를 놓는 장면 역시 학교 야외에 돗자리와 테이블을 깔고 진행했다. 1925년은 최악의 흉수를 겪은 해로 기록되어 더더욱 촬영 여건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야외로 세팅을 옮길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촬영했다. 무거운 장비들이 있는 목공 작업장의 경우,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의존해 실내에서 촬영했고 때문에 일부 장면은 콘트라스트가 과도하게 올라갔다. 또 다른 경우는 불교 사찰의 내부에 있는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장면이다. 베버는 기록에서 미술품 촬영을 사찰에서 끝내 허락하지 않아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때 부족한 광원 때문에 조리개를 최대한 열고 찍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한 프레임을 여러 개 복사해서 마치 스틸 장면처럼 영화에 사용했다.<sup>2)</sup> 이렇듯 무성영화의 기술적 제약과 촬영 여건은 영화의 많은 부분을 특징지었다.

2) 베버는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에 어떤 프레임을 늘릴지 선택하여 표시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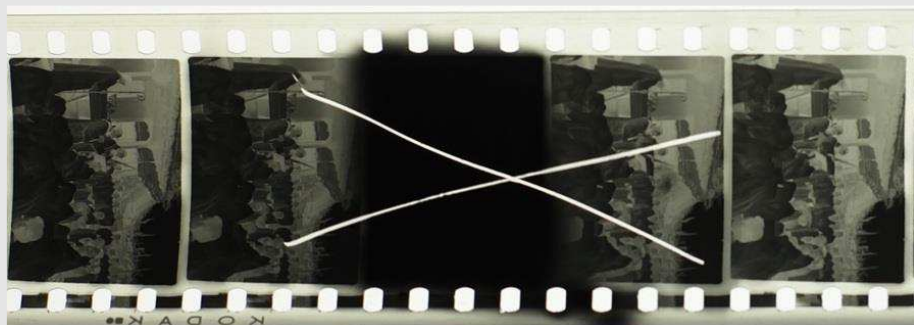
무성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버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유연함이다. 편집이 네거티브 필름이 아니라 포지티브 필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3)</sup> 이는 각각의 상영용 프린트가 고유성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무성영화 시기 일반적이었던 컬러가 더해지면 당대 향유됐던 영화의 모습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2015년 한국영상자료원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오리지널 머티리얼(original material)<sup>4)</sup> 2점, 즉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하 ON) 1점과 오리지널 프린트(이하 OP) 1점을 각각 디지털 스캔하여 수집했다. OP는 국내에 출시된 DVD와는 다른 버전으로, 착색(tinting)이 되어 있다. 한편 ON에는 포지티브 커팅의 가이드가 되는 정보가 함축되어 있어 네거티브 필름의 발굴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sup>5)</sup>



3) 이를 '포지티브 커팅(positive cutting)'이라 한다.

4) 당대에 생산된 필름을 “오리지널 머티리얼(original material)”이라 하여 이후 아카이빙을 위해 복사한 필름과 구분한다.

5) 실제로 ON에서 다섯 종류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간자막의 위치와 내용을 표시 ②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 네거티브 필름을 사용해 쇼트를 추가하라는 지시 ③ 사용하지 말아야 할 프레임에 X표시(주로 과다 노출된 프레임) ④ 막과 쇼트의 번호 표시 ⑤ 착색(tinting)의 컬러 표시(오렌지색 혹은 붉은 오렌지색)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6막 ON. 엑스마크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1막 ON  
신 번호와 함께 오렌지색으로 틸팅하라는 손글씨

\* 출처: So Won Choi(HTW Berlin)

ON과 OP를 비교해보면 OP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OP의 경우, 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누락된 프레임들이 많고<sup>6)</sup> 스크래치와 먼지 등 사용감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당대 많은 상영에 쓰였던 것이 분명하다. 영화 필름에서 가장 많은 손길이 닿았을 첫 번째 릴의 첫 타이틀과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조선까지의 여정을 설명하는 첫 장면은 통째로 유실됐다. 흥미로운 것은 2막의 베 짜기 시퀀스와 3막의 맹인이 질병의 원인인 잡귀를 내쫓는 의식을 하는 시퀀스가 릴의 처음이나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째로 누락된 것이다.<sup>7)</sup> 또 다른 차이점은 일부 장면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수도원 학교의 아이들이 수녀님, 신부님과 함께 노는 장면은 OP에서는 선교 철학에 대한 내용인 4막에 위치하지만, ON에서는 교육 사업을 소개하는 5막에 위치한다. 상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베버가 영화를 계속해서 수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포지티브 커팅을 했던 편집기사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갓 구워낸 큰 장독을 두 남자가 옮기는 장면의 경우 ON과 OP에서 위치가 다른데, 내용적 맥락에서 보면 ON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쇼트를 일일이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ON에서도 몇몇 쇼트가 누락됐음이 발견된다. 그 원인은 1920년대 후반이 수동 인화에서 자동 인화 시스템으로 전이<sup>8)</sup>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거티브 필름이 새롭게 조합되는 과정에서 몇몇 쇼트가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영화 초반에 해안가에서 나룻배가 지나가는 장면은 ON에 붙어있는 필름 자체가 이미 두 차례 복사를

- 6) 상영할 때마다 영사기에 걸게 되는 프린트는 릴과 릴을 갈아 끼우면서 손상과 유실이 되기 쉬운 조건에 처한다. 릴의 처음과 끝에 스크래치와 먼지가 유난히 많고 프레임 수가 적거나 쇼트 단위로 유실된 경우도 있다.
- 7) 베버는 한정된 촬영본에서 최대한 많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프린트의 일부를 잘라내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프린트 재활용을 한 것이다.
- 8) 수동 인화 시스템에서는 인화 시 노출되는 빛의 양에 따라 각각의 쇼트를 묶어서 별도로 보관했다. 자동 인화로 넘어가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쇼트들은 영화의 전개 순서에 따라 재조합되었을 것이다.

거친 2세대 네거티브 필름<sup>9)</sup>이다. 즉 재조합 과정에서 해당 필름을 찾을 수 없어 이미 만들어진 포지티브 필름에서 다시 네거티브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이다. 때문에 이 부분의 화질이 유독 눈에 띄게 좋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2세대 네거티브 필름으로 대체된 쇼트 중 일부는 다행히도 별도로 수집된 ‘미사용 촬영 푸티지’에서 그 원본 네거티브 필름을 찾을 수 있었다. 일례가 금강산의 벽화 장면인데, 추측하건대 이 장면은 네거티브 필름 재조합 과정에서 원본 네거티브 필름을 찾을 수 없어 프린트로부터 2세대 네거티브 필름으로 복사되었으나, 다행히 ‘미사용 촬영 푸티지’에 섞여 들어가 유실되지 않다. 그 결과 한국영상자료원은 디지털 복원 과정에서 미사용 푸티지들을 분석하여 원본 네거티브 필름에서 유실됐던 장면들을 최대한 찾아내 복구할 수 있었다.

9) 촬영 원본 네거티브 필름이 "0세대"(zero generation)이고 이것을 복사한 오리지널 프린트는 1세대가 된다. 이것을 다시 복사한 것이 2세대 네거티브 필름이다. 필름이 복사될 때, 즉 세대가 더해질수록 이미지 콘트라스트와 입자성(granularity)이 올라가면서 화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최대한 윗세대 필름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국내 출시 버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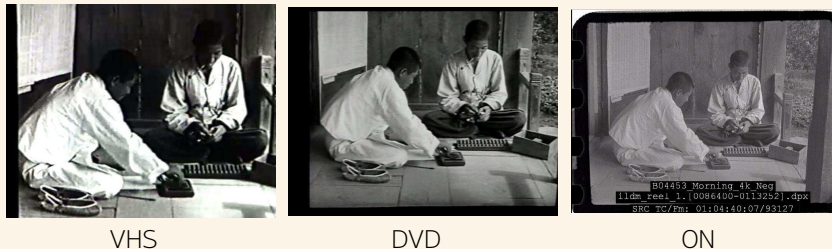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그동안 한국에 총 4차례 소개되었다. 1979년과 1985년에 TV로 방영됐고, 이후 VHS와 DVD로 각각 1986년과 2009년에 출시됐다. 그 중 방영 또는 출시된 영상의 복사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최근에 출시된 DVD 뿐이다. 특히 1979년 MBC 첫 방영 당시 《경향신문》에서 “영구보존할 귀중한 문화재”로 대서특필하며\* 영화의 중요성을 알렸지만, 당시 발굴된 16mm 필름은 국내 어느 기관에서도 보존하고 있지 않다. 1979년과 1985년 MBC에서 방영된 방송 영상은 현존하는 영화와 다른 버전으로 추정되나, 이마저도 일부만 보존되어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영화 제목을 표기하지 않았고, 그래픽과 해설자의 개입 및 편집으로 인해 영화 본래의 모습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VHS와 DVD 출시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VHS는 베네딕도 미디어가 1986년 〈조용한 아침의 나라-한국, 1920년대 풍물〉이라는 제목으로 출시했으며, 총 러닝타임은 1시간 33분이다. 구성은 6장으로 구성된 최근 버전과 달리, 각 막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간자막이 없고, 1부와 2부의 한글 자막으로 구성했다. 내용면으로 1부는 기존의 1~3장과 〈한국의 결혼식〉을, 2부는 4~6장을 포함한다. VHS는 제작 과정에서 화면 잘림(cropping)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이미지 외곽의 상당부분이 잘라져 나갔고, 극단적인 콘트라스트와 굵어진 입자로 인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장면이 많을 정도로 화질이 열악하다. 영화의 속도 역시 지나치게 빨라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한국의 결혼식〉 부분에 유독 더 많은 화면 손상(스크래치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어 영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향신문》, 1979.04.07., 1면.

2009년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베네딕도 미디어가 출시한 DVD는 현존하는 버전 중 구성과 길이에 있어 1928년 독일 뮌헨에서 받은 영화 심의서류의 내용과 가장 가깝게 일치한다. DVD의 원본 소스는 35mm 듀프 네거티브 필름으로, 한 세대 위의 오리지널 프린트 필름은 안타깝게도 소실된 상태다. 영화와 해설본을 별도로 구성하여 영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DVD 해상도의 한계로 인한 과도한 콘트라스트와 굵은 입자, 화면 잘림과 속도 문제 역시 VHS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매체별 화질 및 화면 사이즈 비교



무성영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다양하게 현존하는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이 작품은 여러 개의 버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 유럽 극영화가 해외 배급 시 해당 국가의 검열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1930년대까지 이어졌던 순회 상영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극동의 선교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민족지적 설명 또한 함께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편집을 수정해 개선하고, 교육 등 상영 목적에 따라 짧은 버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포지티브 커팅’을 하는 무성영화 후반 작업의 특성상 이는 비교적 수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더불어 사소한 편집기사의 실수나 간자

막 길이 등 임의의 어림 작업으로 인해 각각의 오리지널 프린트는 고유성을 가진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오리지널 필름을 발굴함으로써 그동안 소개되었던 TV 방영본, 국내 출시판(VHS, DVD)을 비교해 버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27년 6월 3일 뮌헨 민족학박물관에서 열린 첫 상영에 관한 신문기사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에 〈한국의 결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1986년 국내 출시된 VHS 버전 역시 장례식 장면 다음에 〈한국의 결혼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28년 영화심의서류에는 〈한국의 결혼식〉은 별도의 단편으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VHS 버전은 첫 상영과 영화 심의 사이의 초기 버전임을 알 수 있다. 1985년 TV 방영본 역시 〈한국의 결혼식〉을 포함하고 있어 초기 버전이라 추론할 수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다른 버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남사당놀이 공연의 현장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 버전에는 또한 병자성사의 장면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928년 심의버전에는 포함되지 않은 귀중한 장면들이다.

## 영상 해제 ②

### <한국의 결혼식 *Eine Koreanische Hochzeitsfeier*>

베버 컬렉션에서 유일한 극영화인 <한국의 결혼식>은 김(Kim)과 마라(Marra)의 결혼에 대한 단편이다. 1927년 6월 3일 뮌헨 민족학박물관에서 열린 첫 상영에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일부로 존재했으나 1928년 별개의 단편영화로 영화심의 평가를 받았다. 조선의 전통 혼례 과정을 극영화 형식을 차용해 흥미롭게 표현한 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첫 상영에 관한 신문기사에서 기자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중에서 청혼하는 과정과 결혼식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고 재미있다고 강조했다.<sup>1)</sup>

<한국의 결혼식>은 두 개의 장으로 나뉜다.<sup>2)</sup> 1장은 김이 마라의 집안에 청혼하고 승낙을 받은 후 혼례를 준비하기까지의 이야기이고, 2장은 결혼식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다. 극영화 형식을 취하지만 민족지적 기록에 방점을 두어 전통 혼례에 쓰이는 소품, 의상, 절차를 차례로 보여주는 데 공을 들였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 돌아가서 추가로 촬영한 클로즈업 쇼트를 함께 사용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해제 글에서 전술했듯이 영화적 연속성보다는 한정된 촬영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은 <한국의 결혼식>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마라가 신부 예복을 입는 장면에서 갑자기 다른 공간에서 촬영한 혼례복을 입은 마라의 모습과 클로즈업 장면을 함께 삽입해 의상과 소품을 강조하는 식이다. <고요한 아침

의 나라에서>에서는 보기 힘든, 계산된 쇼트 구성도 눈에 띈다. 예비 신랑이 새참 먹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상의하는 장면은 풀 쇼트에서 웨이스트 쇼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좀 더 통제된 환경 속에서 촬영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결혼식>은 1925년 6월 12~13일 내평<sup>3)</sup>에 머무는 동안 촬영한 작품으로, 주로 내평 본당의 마당과 정원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금강산 등반에도 함께 갔던 내평의 담당 신부인 카누트 다베르나스(P. Canut d'Avernas)를 중심으로 출연할 신자들을 뽑고, 소품, 의상, 음식 등의 사전 준비를 했을 것이다. 게다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장면들인 베 짜기, 짚신 삼기, 주판으로 계산하기, 논일을 하고 새참을 먹는 장면에서 역시 김이 출연하는 것으로 보아 내평에서 촬영된 분량은 상당하다. 담당 선교사의 기록은 촬영 현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마을사람들은 처음에는 거대한 카메라 앞에 서기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총아빠스는 비용에 대해 관대했는데 특히 결혼식 필름에 대해 그러했다. 내평 본당에서 80인분의 국수를 준비했는데, 곧 동이 나서 이웃마을 고안(Goyan)에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 재료를 가져와야 했다.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초대 여부와 상관없이 구경 온 것 같았다. 첫 번째 만든 국수는 남자 배우들이 국수를 먹는 장면을 찍기도 전에 동이 났다. 많은 구경꾼들은 영화 촬영 보는 것을 즐기고 음식을 먹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쩍은 분위기였으나 곧 부부가 카메라 앞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하는 광경을 즐기기 시작했다. 고생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노르베르트 베버 총아빠스였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카메라 크랭크를 돌렸다. 다양한 공간과 정원을 가진 내평 본당에서 촬영이 진행되어 편리했다. 별도로 공공교통을 방해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었다.<sup>4)</sup>

1) Bayerische Staatszeitung, June 4, 1927.

2) 자료원이 보유 중인 두 벌의 오리지널 프린트(이하 A와 B라고 함)를 살펴보면 2부 시작점이 서로 다르다. A는 혼례가 시작되어 신랑이 절을 하려는 쇼트의 중간에 2부의 간자막이 삽입되었고, B에서는 그보다 1분가량 먼저 신랑이 말을 타고 예식을 위해 도착하는 장면 전에 2부의 시작을 알리는 간자막을 넣었다.

3) 내평리는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안변군 위익면에 속했다. 광복 후 강원도 안변군 신고산면으로 변경되었고, 1952년부터 북한 행정구역 내 강원도 고산군 혁창리에 속하게 되었다.

4) Chronik von Naihpyeng, Feb. - July, 1925.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의 결혼식>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하 ON) 1점과 오리지널 프린트 (이하 OP) 2점(편의상 A와 B로 구분)을 디지털 스캔해 수집했다. OP의 길이는 A는 560m, B는 588m이다. A가 B보다 스크래치와 손상이 더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사에 사용된 빈도가 높았고, B는 전반부에 스크래치가 거의 없다가 후반부에만 퍼포레이션 부분의 손상을 보인다. 필름스톡을 관찰할 때 A는 1931년에 생산된 Kodak A.G. 필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1931년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프린트 모두 오렌지색으로 착색(tinting)되어 있다. ON에는 프린트에서 사용되지 않은 촬영본이 붙어 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찍힌 부엌의 밥 짓는 장면이다. 결혼식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넣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태양광이 없는 부엌에서 적정 노출을 얻기 위해 크랭크를 매우 천천히 돌려 노출을 최대화해 찍었다. 그러나 영사 속도의 문제로 최종 편집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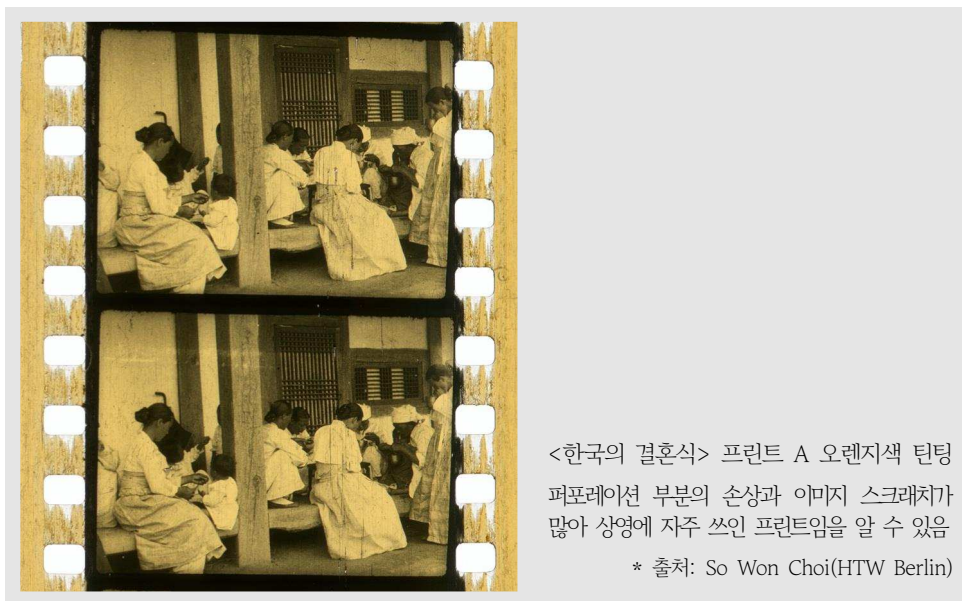
초기 무성영화 특유의 태양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의 결혼식>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혼례 준비 과정에서 신부의 장식품을 방에서 구경하는 장면이 흥미롭다. 두 여성이 신부의 꽃신과 족두리 등을 보고 있는데 병풍 위로는 하늘이 펼쳐져 있다. 신부의 방을 야외에 세팅해서 촬영한 것이다. 두 번째 흥미로운 노력은 후반 작업에서 나타난다. 프린트 B의 필름스톡은 일반적인 프린트 필름스톡이 아닌 듀프(dupe) 필름스톡이다. 듀프 필름스톡은 콘트라스트가 낮게 설계되어 1920년대 후반부터 생산<sup>5)</sup>된 것으로 대량으로 프린트를 제작할 때 중간 단계를 두어 원본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름이다. 때문에 여러 차례 복사를 통해 콘트라스트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마값이 낮은데, 베버는 햇살이 강렬한 날 야외에서 촬영된 결혼식 장면의 콘트라스트를 줄여보려고 새로운 듀프 필름스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프린트 B의 결혼식 야외 장면은 A에 비해 그늘과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개선되었다.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을 실험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베버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결혼식>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차례 영화심의를 받았다.<sup>6)</sup> 첫 번째 심의서류에는 교육영화 인증 증서<sup>7)</sup>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5) KODAK에서 1926년 처음 출시되었고, AGFA와 Pathe가 뒤를 이었다.

6) 뮌헨(1928.03.21.)과 베를린(1935.08.01.)의 영화심의기관에서 받았다.

7) 교육영화 인증 증서(1928.03.26.)에 명시된 <한국의 결혼식> 버전은 1926.06.10.일자이며, 필름 길이는 562미터로 영화심의 증서와 동일하다.



<한국의 결혼식> 프린트 A 오렌지색 틴팅  
퍼포레이션 부분의 손상과 이미지 스크래치가  
많아 상영에 자주 쓰인 프린트임을 알 수 있음

\* 출처: So Won Choi(HTW Berlin)

### 영상 해제 ③

#### <한국의 아이들> <한국 선교의 현장에서> <조상숭배>

노르베르트 베버 필름 컬렉션 중 아래의 단편 3편은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에 듀프 네거티브 필름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2015년 한국영상자료원이 디지털 스캔하여 수집한 것이다. 이들의 원 세대인 오리지널 필름은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들 단편 3편은 모두 영화심의를 받지 않았고, <조상숭배>는 사실상 미사용 촬영본을 모아놓은 것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원정 영화(expedition film)의 특성이 그러하듯 베버 역시 한정된 촬영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와 <한국의 결혼식>을 만든 후 남은 촬영본 필름을 이용해서 단편을 만들었던 시도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 <한국의 아이들 *Unter der Jugend Koreas*>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따로 떼어 모아놓은 것으로, 동일 장면의 다른 테이크(take)를 가지고 단편을 만들었다. 맥락에 맞는 간자막은 새로 만들어 추가했다. 총석정 해안가의 아이들, 그네를 타고 놀이를 하는 소녀들, 노래하고 춤을 추는 아이들, 수녀의 도움으로 수를 놓는 소녀들, 원산 해성학교 운동회의 다양한 모습들, 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 두 소년, 학교 운동장에서 씨름을 하는 소년들의 장면 등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에 나온 장면들로 구성됐다.

#### <한국의 선교현장에서 *Auf dem Koreanischen Missionsfelde*>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의 조선과 북간도에서의 선교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역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를 완성한 후에 남은 컷들을 편집해서 만든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두 번째 파트인 선교 활동에 대한 4~6막의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며 간자막도 같은 것을 사용했다. 다만 소녀가 베버 총아빠스에게 딸기를 가져다주는 장면 앞에 “아이들이 주교에게 산딸기를 선물하려고 가져 온다”는 간자막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베네딕도회 선교 철학을 보여주는 장면들로, 선교사가 농부들과 어울리고, 마을 어르신과 장기를 두고 신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장면이 포함됐다. 후반부는 주로 베버 총아빠스가 세례식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모든 장면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와 동일하다고 느껴지지만, 쓰이지 않은 비슷한 컷들로 구성되어 있다.

#### <조상숭배 *Ahnenkult*>

완성된 작품이 아닌, 사실상 무질서하게 쇼트들을 모아놓은 미사용 촬영본 모음이다. 발굴된 필름 캔에 <조상숭배>라는 제목이 적혀있어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에서는 하나의 단편 작품으로 인지했지만, 실제로는 베버 총아빠스가 기획만 해놓고 제작을 하지 않았거나 보존 과정에서 필름 캔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영상 내에 해당 작품의 타이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약 14분 분량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와 <한국의 결혼식>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같은 설정에서 촬영된 다양한 장면들을 포함한다. 내평 본당의 결혼식 준비, 원산 해성학교의 운동회, 금강산의 계곡과 총석정, 목공 작업장 등이다. 본편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포커스가 제대로 맞지 않는 등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장면은 성당 내부에서 실제로 미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노출이 부족하여 크랭크를 천천히 돌려 촬영했다. 눈에 띄는 장면은 해성학교의 운동회에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며 간격을 맞추는 소년들을 따라 카메라가 패닝하며 학교 전경을 비추는 장면으로, 카메라에 움직임을 준 것도 매우 드물지만 해성학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쇼트다.

## 영상 해제 ④

### 미사용 촬영 푸티지

2015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에서 수집한 미사용 촬영 푸티지는 베버가 본편의 편집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필름을 임의로 모아붙인 것으로 약 240분 분량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편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장면의 다른 테이크(take)이다. 아이들의 춤, 도자기를 굽는 과정, 짚신 삼기, 베 짜기 등으로, 어떤 장면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촬영했는지 알 수 있다. 둘째, 카메라 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당시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촬영장의 분위기를 통해 영화 현장에 참여한 신자들, 마을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선교사와의 관계 등을 짐작케 해준다. 또한 독일에서의 보충 촬영 현장 등 어떤 설정과 맥락을 가지고 연출한 장면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 셋째, 여정의 기록이다. 차를 타고 지나며 찍은 서울의 모습, 백동 수도원이 내려다보이는 산 아래 전망 등 베버의 여정에 따라 장면의 정확한 위치를 과학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넷째, 본편에 쓰인 2세대 필름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 존재한다. 특히 금강산 사찰의 불교 미술 장면 등이 포함되어 본편 복원의 중요한 리소스가 될 것이다.

본편의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과 프린트가 함께 발굴된 것만으로도 드문 일인데, 미사용 촬영 푸티지까지 발굴된 것은 당대 촬영한 필름의 상당 부분이 원본 형태로 발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편의 복원은 물론이고, 1925년 촬영한 필름 전부를 촬영 지역과 여정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할 수 있어 영상 사료로서의 아카이빙에 상당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베버 영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깊이를 더할 뿐 아니라 근대사, 종교학, 민속학, 예술사 등 인접 학문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의 보충촬영 현장으로 추정되는 미사용 푸티지